

2018년 6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8.6.28.(목) 오전 10:30

■ 주요 회의 내용

▲ 보도의 공정성, 심층성, 객관성, 확보

- 김종필씨 관련 균형 잡힌 평가가 아쉬웠음. 연합뉴스티브이에 보도된 기사 제목들은 이러했다. "풍운아 김종필 전 총리 타계" "영원한 2인자였지만 최고의 킹메이커" "정치10단,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 거둬 패착" "촌철살인 김종필 어록". 정부가 무궁화장을 추서하고, 문 대통령이 조문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담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신했음. 평가에서는 언론 매체 일반의 평가를 따랐고, 훈장 및 대통령 조문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맞세우는 방식의 손쉬운 문법을 그대로 따랐음. 때문에 연합뉴스티브이 보도에서 김종필은 풍운아 킹메이커 촌철살인 등 긍정적인 모습으로 각인됐음. 김종필은 해방국면에서 국대안 파동 때 군정에 맞서다 서울대학교에서 퇴학당했고, 형제들의 정치적 선택에 따라 좌익의 길을 걷는 것으로 청년기를 시작했음. 516쿠데타와 함께 정권의 2인자가 되어, 미국 씨아이에이가 아니라 옛 소련의 KGB를 모델로 중앙정보부를 창설했으며, 박정희 장기집권의 정권 수호자이자 경찰국가의 토대를 닦았음. 권력 안에서 부침은 있었지만 그것은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과는 무관한 권력투쟁의 단면들일 뿐이었음. 그가 킹메이커가 된 것은 압도적인 지지기반을 갖고 있던 김대중 김영삼 그리고 티케이세력 사이에서 정치적 줄타기를 한 결과이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음. 결국 자신의 출세와 권력을 위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였음. 그런 기회주의적 처신은 박근혜에 대한 평가에서 잘 나타났음. 박근혜가 정치 전면에 나섰을 때 '멍청이' '부모의 나쁜 것만 빼닮은 아이' 따위로 폄하했고,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180도 입장을 바꿔 입술에 침이 마르도록 박근혜를 칭찬했음. 지난 대선에선 문재인 후보를 '빌어먹을 자식'이라고도 했음. 그 이유는 김정은과 만나겠다는 것 때문이었음. 인생의 출발점에서 그가 취했던 태도는 무엇이었던가.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일관했던 그의 인생은 정치판의 고단수 광대였음. 연합뉴스티브이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좀 더 진지했으면 좋겠음 (곽병찬 위원)
- 월성원전 폐기 관련 전력요금 인상 등 반대론자의 의견만 부각함(권영후 부위원장)
- 26일 혜화역 시위 내용이 편파적이라는 말이 있었음. 페미니스트 시위는 찬반 논쟁이 많아서 조심스럽게 다뤄야함. 편집된 영상이 한쪽에 지나치게 미화되었다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들어서 확인이 필요함. 전체적인 기사를 취재해서 리

포팅하는 형식의 보도에서 취재원에 대한 양쪽 내용이 균형 있게 포함된 것인 지도 이야기 되고 있음(노영희 위원)

- 정상회담 결과 평가 관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 안전 안전보장의 등가교환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음. CVID는 완전한 비핵화의 하위개념, 종전과 평화체제는 안전보장의 하위개념이라는 설득력 있는 분석기사가 부족했음. 비핵화가 미흡하다는 평가보다는 향후 실천 로드맵과 협상에 보도의 중점을 두어야 함(권영후 부위원장)
- 한반도 평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국면에서 연합티브이의 존재감이 현저히 떨어졌음. 남북 북미 협상과 관련한 보도는 언론사간 새로운 사실의 특종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해석과 전망을 놓고 벌어짐. 워낙 사안이 민감하고, 사실들이 깊숙이 숨어 있기 때문임. 이 사안의 성격상 특종 경쟁이 아니라 오보만 하지 않으면 다행인 것이었음. 따라서 승부를 건다면 보도의 심층성과 기획력임. 따라서 존재감 상실을 두고, 공중파나 다른 종편과 비교해 취재 인력이나 비용 지원 등 물리적 역량 탓으로 돌려선 안 됨. 문제 원인을 기획력이나 심층성에서 찾아야 함. 사실 연합뉴스티브이는 이 사안과 관련 단편적인 사실만 고장난 턴테이블처럼 돌리고 또 돌렸음. 승패를 좌우할 분석과 전망 역시 평이하거나 뒤졌음. 대담 좌담 큐앤에이 등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돈이 드는 일은 아님. 남북 철도 연결, 휴전선 무력 후방 이동, 월드컵 공동 개최 등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기획에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님. 방송 분야에서의 뉴스공급원을 자처하면서 팩트와 영상도 특별하지 않고, 분석과 전망도 부실하다면 스스로 존재이유를 물어야 할 것 같음. 박근혜 정부가 전형적 포퓰리즘 선동 슬로건인 '통일 대박'을 제시했을 때 조선일보나 다른 매체들이 어떤 기획을 내놨는지 돌아보면, 좋은 영감을 받을 것 같음(곽병찬 위원)
- 정상회담 이후의 전망, 해야 할 일 등에 대한 보도가 좀 더 있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음. 기대되는 협력, 사업 등도 있지만 미국, 유엔 등의 제재에 따른 문제 등 이슈가 많은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해설 등 보도가 지속적, 주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됨(김석민 위원)
- 정신질환자 범죄 늘고 있는데... 관리체계는 '미흡' 이라는 보도 내용 관련 뉴스는 어떤 관리 체계가 필요한가를 설명해야 하는데 정작 내용은 정신질환 의료수가가 일반질환 수가의 60%수준이고, '의사 1명당 돌봐야 하는 환자 수는 일반 병원의 3배'라는 내용으로 구체성과 설득력이 떨어지는 내용이었음. 또한 아래의 설명처럼 어떤 내용을 보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1)환자 1인당 의료수가가 일반 73,651원, 정신질환 45,400원이라고 보도 되었는데, 평균 의료비인지, 아니면 국가가 의료비를 지급하는 의료급여 환자의 수가를 보도한 것인지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설명이 명확하지 않음. 아마도 의료급여 환자의 수가 차이를 보도한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의료급여의 경우 진료비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했어야 함. 2)의사 수도, 아마도 정신병원의 경

우 환자 60명당 의사 1인, 종합병원이나 병원의 경우 일반 환자 20명당 의사 1인이라는 법률상 기준을 보도한 듯.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보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3)정부와 지자체도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서울의 경우 1인당 많게는 260명을 관리해야 하는 등: 마찬가지로. 아마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직원 1명이 담당하는 재가 환자 숫자를 일컫는 것으로 보임. 현재의 내용은 어떤 성격의 시설인지, 입원 혹은 입소 환자 숫자인지 외래 환자 숫자인지, 담당하는 재가 환자 숫자인지 알 수가 없음 하규섭 위원)

▲ 뉴스소재의 균형과 보도의 차별화 전략

-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 전 며칠간의 싱가포르 현지 취재 보도는 언론의 취재 열기에 비해, 보도 대상 뉴스가 많지 않아서 너무 사소한 내용의 취재가 다수 등장함 예를 들어, 6.9 오후 뉴스들은 “북미 정상 무슨 선물 교환할까?”, “싱가포르에서도 평양냉면?” “북한식 햄버거, 콜라 준비?” 등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의 실질적 중요성을 오히려 삭감시키는 주변적 보도가 너무 많았고, 호텔 근처의 도로를 통제하고 있는 현지 경찰에게 “인도로 걸어가는 것은 괜찮으냐?”고 질문하는 등 뉴스를 채우기 위한 보도와 같은 인상을 주는 부분이 있었음(오준 위원장)
-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 그렇게 붙들고 늘어질 이유가 있었을까? <6.23>오후 네이버 뉴스 스탠드, 흔적 없이 사라진 강진 여고생…수색 난항, <6.24>강진 야산서 실종 여학생 추정 시신 발견, <6.25>여고생 추정 시신 발견됐지만…사건 경위는 아직 '미궁' 등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과도했음. 그 날의 뉴스 가운데 주요 아이템만 추려 올리는 포털 뉴스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연합뉴스는 매일 이 뉴스를 톱 혹은 사이드로 올렸음. 티브이 보도에서도 서너 차례씩 매일 올렸음. 세월호 참사 때 유병언의 행적만 쫓던 언론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음. 이 기사는 대중의 말초적 흥미를 끌 만한 요소는 많았음. 여고생, 유력 용의자는 아버지 친구. 실종, 용의자는 자살. 그러나 단순 사건이었음.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도 없었고, 정책적 혹은 정치적 함의도 없었음. 게다가 이런 속보가 유가족에겐 참기 힘든 일이었을 것임. 경찰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실 규명을 하면 되는 사안이었음. 그러나 연합뉴스티브이는 줄기차게 이 보도에 집착했음. 왜 그랬을까. 기사가 없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시청자의 말초적 관심사에 영합해 시청률을 늘리기 위해서였을까.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에도 대개 머리기사 혹은 주요기사로 보도했음. 26일 발견하고, 이튿날 머리기사로 오른 이 사건의 제목은 “사체를 체취견이 발견했다”는 것이었음. 개가 주검을 찾아냈다는 게 그렇게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었나(곽병찬 위원)
- 뉴스내용의 반복 뿐 아니라 구성도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구성도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한국 독일 축구 시합 직후 스포츠 와

- 이드에서는 관련 보도가 부재이며 특별한 사건이나 결정이 있으면 구성도 바꿀 필요가 있음(이우영 위원)
- 한진가 관련 뉴스 및 성범죄 관련 뉴스에 너무 치중된 느낌이었음(하규섭 위원)
- 많은 국민의 심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먼지가 6월이 되었는데도 계속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원인, 대책, 혹은 무대책 등에 관하여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는 점이 우려스러움(하규섭 위원)
- '별거 중 아내 아령으로 때려 살해한 남편 검거', '이별 요구한 여자친구 살해 30대 구속영장' 뉴스는 굳이 시청자들이 알 필요가 있는 뉴스인가 싶은 뉴스였음(하규섭 위원)
- 지방권력 사정관련 정부의 지방정부 사정 관련 각종 부조리와 부정부패에 대한 기획 탐사 보도 요망함(권영후 부위원장)
- 뉴스 시청자의 피크 타임은 아침 시간대. 아침시간대가 가장 중요한데 연합뉴스의 경우에도 다른 언론사처럼 보도내용 반복됨. 반복 시작되면 으레 반복되겠거니 하며 채널 변경하는 시청자들 많을 것. 가벼운 터치보도 들어가며, 다양한 편린들을 들어가며 반복이라는 인상을 살짝만 희석시켜도 채널고정 유지에 도움될 것(이경상 위원)
- 핵심문제를 정의하고 근본해법을 지속 고민하는 것이 중요함. 예산과 비용문제 등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라 문제해결노력을 계속해야 함. 그렇게 할 때 혁신 가능함. 시청자가 가장 많이 접하는 지점, 임팩트 큰 간판프로그램에서는 해당 프로그램만에 대한 손익분석표만 따지는 것은 하책. 연합뉴스 전체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 감안해 이미지 광고하듯 전략적 혁신에 나섰으면 함(이경상 위원)

▲ 언론의 역할과 보도시 주의사항

- TV뉴스에서 단순한 정보 전달이 최선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정보전달은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전달경로들이 다수 출현함. 사안에 따라서 정보전달이 우선인 경우와 해석과 입장이 중요한 경우로 분리할 필요가 있음. 사건 등은 정보 전달이 우선인 반면 경제정책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 등에 대해선 사안에 대한 해설이 더욱 중요함. 언론사의 입장은 명확히 하는 것이 기계적 객관성 보다는 더욱 필요할 경우도 있음(이우영 위원)
-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서 나름 회사의 입장을 가지면서 논쟁을 유도하고 사회적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임. 방송이 전체적으로 지루한 경향과도 관계가 있음(이우영 위원)
- 북미정상회담관련 북 비행기 3대 이용, 중국 비행기 임대, 전용 화장실과 벤츠 공수, 싱가포르 호텔비 부담, 철벽 경호 등 지엽적이고 선정적 내용을 보도함. 대북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올바른 남북관계를 형성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권영후 부위원장)

- 경제문제 관련 정부 경제정책 실패론, 일자리 감소,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노동 제도 시행, 탈핵, 미국 금리인상, 미중 무역 분쟁 관련 경제위기론을 부채질하는 보도는 지양해야함. 전문가들의 경제위기 프레임을 만들려는 경향 경계하고, 합리적 의심이라는 명분하에 위기론 재탕, 통계의 침소봉대는 자제해야 함. 경제 정책 보도는 탐사 기획보도보다는 단순 스트레이트, 열거하는 백화점식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종부세 개편관련 일부 언론의 세금폭탄, 징벌적 종부세 낙인찍기 유의해야함(권영후 부위원장)
- 경제수석 등 청와대 참모 교체관련 소득주도성장, 공정성장, 혁신성장 3축 경제 정책 관련 정부의 추진력과 소통노력이 부족한점을 지적하고 주도적인 의제 설정에 주력해야 함. 개념 명확화, 부처별 중구난방식 의제 설정 정리가 필요함. 청, 정, 찬반 전문가 집단의 다양한 의견 수렴, 일방에 치우친 담론 표출 지양하고 보수와 경제계는 소득주도와 공정성장의 부작용만 과장 부각하려고 시도하면서 혁신성장을 만병통치약으로 선전하고 있음. 혁신에 따른 기득권 저항, 생태계 파괴 등 부작용도 적극 알려 시청자의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함(권영후 부위원장)

▲ 자료화면, 자막 등 개선 필요

- 6.1 출발 640 뉴스 방송 중 앵커 뒤편의 보도국 모습에 슬리퍼를 신은 직원들이 서서 대화하는 장면이 잡히는 등 무성의하게 보이는 배경처리가 눈에 뜨임(오준 위원장)
- 북미정상회담 이후 뉴스 속보가 북측 인사들의 귀국 관련으로 너무 시간과 노력을 쏟은 것이 아닌가 싶음. 호텔 앞 차량대기, 이동 상황, 경호원의 공항 도착 등으로 뉴스를 하고 있었는데, 화면에 호텔 앞 차량 모습을 계속 내보내면서 아나운서의 얘기나 화면의 대형 자막(경호원 창이공항 도착) 등을 내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었음. 물론 우리나라 방송사들은 대부분 같은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었는데, 같은 시간 CNN, NHK 등은 호텔 앞이나 공항모습을 보도하지 않고 정상회담의 내용에 대한 분석과 전문가 토론 등을 보도하고 있었음.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이 입장이 다르겠지만, 우리 방송이 김정은의 동정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됨(김석민 위원)
- 우리 방송보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중 하나가 보도의 배경이 되는 영상화면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 것임. 예전에는 과거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 자료영상이라고 표시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표시하지 않는다. 보도윤리가 과거보다 퇴보한 것임.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화면이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지, 과거 영상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비일비재임. 25일 기사에는 미군 유해 반환 기사를 다루면서 판문점에서 미군유해 운구함이 전시된 영상이 나갔음. 과거 영상이다. 그렇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유해가 이미 미국으로 돌아온 것처럼 트위터를 해 비판을 받은 바 있고, 미군이 운구함을 북한에 전달

한 것도 사실이어서 이 화면을 현재 상황으로 오해를 하기 쉬웠음. 그러나 다른 방송에서는 자료화면이라는 자막이 나갔음. 모든 화면을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혼선을 줄 수 있는 영상에는 출처와 시기를 밝히는 것이 시청자에 대한 예의이자 보도원칙임(배정근 위원)

- 시간대별 뉴스 시작 때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중"이라는 자막이 우측 상단에 잠시 나오는데, 실제로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려면 좀더 길게 유지하고 뉴스 중간에도 수시로 안내 자막을 띄울 필요가 있다고 봄. 이와 함께 모든 뉴스는 아니더라도, 주요 뉴스는 수화 통역을 화면 한 부분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함 오준 위원장)
- 뉴스 투나잇 10시, 11시 보도에서 본 방송과 스크롤에 자막 처리하는 뉴스의 구별기준이 있는지? 어떤 뉴스는 본방과 자막에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지만 어떤 뉴스는 그 값어치가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막에만 뜨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면 북핵의 비핵화 방안으로 거론된 미국 전문가의 민수용 전환 가능성이라든지...자막뉴스도 분류를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등의 순서로 같은 분야의 뉴스는 뉴스대로 내보내면 좋을 듯. 어떤 경우에는 문화계 소식이 나오다 정치 뉴스가 나오는가 하면 전혀 관계가 없는 뉴스들이 연결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음(최신용 위원)
- 스크롤 자막에서 '한국당'을 '한국'으로 표현(이우영 위원)

▲ 취재원, 출연자, 앵커 관련 의견

- 뉴스 내용에서 정부 등 공식 취재원의 비중이 높은 것이 연합뉴스TV뿐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의 공통된 특징임. 그럼에도 경제기사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입장, 실물경제와 지표경제가 조화롭게 반영되어야 경제현상이 왜곡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연합뉴스TV 경제기사는 정부 발표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함. 예를 들어 최근 산업 현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조치의 7월 시행을 앞두고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고, 혼란이 벌어지고 있음. 근로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기업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엄청난 산업현장의 변화임. 최저임금 인상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쳐 기업들은 정말 어려운데 연합뉴스TV기사에서는 금융권의 52시간 협상 기사를 제외하고 이 문제를 다룬 기사를 보기 어려웠음. 워낙 문제가 많다보니 21일 정부가 6개월 시행을 유예하기로 전격 결정했음. 그러자 23일, 24일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의 문제점을 다루는 기사가 보도됐음. 유예결정이 나온 뒤에 이런 기사를 쓰는 것은 뒷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 경제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가 나오더라도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은 대부분 정부측 취재원이라는 점도 문제임. 지난 15일에는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을 밑돌아 고용통계가 8년 만에 가장 나쁜 실적을 보였는데 이들 기사를 비판적으로 다루기는 했지만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은 정부 관계자뿐이다. 산업현장과 민간 전문가의 목소리는 없었음(배정근 위원)

- 북미정상회담관련 초기에 전문가 출연 관련 비판론자, 반대론자, 정파론자들로 편중된 느낌, 균형감 있는 인사 발굴이 미흡함. 출연 전문가 다수는 대북 신뢰 문제와 악마라는 기존 시각 고수하며 맹목적 비판에 열중했음(권영후 부위원장)
- 최저임금 관련 최악의 현장 사례만 부각함. 전문가들 다수는 아직 그 효과는 불확실하고 단정내리기 어렵다는 의견을 참고하길 바람(권영후 부위원장)
- 뉴스 진행 앵커들이 시간대별로 차이가 없고 대동소이한 경향이 있음. 대부분의 시간대의 앵커들이 천편일률적인 경향이고 단순히 원고만 기계적으로 낭독하는 수준임. 뉴스에 대한 이해 더 나아가 인간이나 공동체에 대한 공감대도 부족한 느낌이 들어 때로는 거부감이 유발됨. 프로그램별로 진행자의 캐릭터화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이우영 위원)
- 앵커자원이부족함. 계약직 문제와 너무 젊은앵커 위주의 문제를 고민해야 함(노영희 위원)

▲ 긍정 및 기타 의견

- 최근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한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하여 25일 밤2시30분, 바로보는TV 옴부즈맨, 티비와 비평에서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하여 그 동안 세간의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보수와 진보 언론으로 구별하여 그 보도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재판거래 사실 무근이라는 대법관13명의 의견도 함께 인용하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각각의 언론이 이 사안을 바라 보는 시각을 잘 제시하였음. 대법원장의 이 사안에 대한 기본 입장이 수사의뢰가 아니라 수사협조인데 대하여 민변은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반면 조선은 거짓 선동으로 비판했고, 한국과 한겨레는 책임, 진실규명 요구한 바 있고, 경향은 특별사찰과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음. 이 사건은 검찰로서도 다루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며,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양분될 수 있는 정치적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사건임에도 옴부즈맨 프로그램에서 기자가 아닌 최선규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가 출연하여 하나의 사건을 놓고 다양한 시각을 분석적 시각에서 제시한 것은 사실에 충실한 보도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중립적 입장을 견지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함(최신용 위원)
- 북미정상회담 관련해서 타 방송사 특히 종편과 비교해서 보면, 6.10(일) 저녁 시간에 jtbc 등은 싱가포르 현지 뉴스 또는 정상회담 관련 뉴스를 하고 있는데 연합TV는 스페셜 "6월의 그 날..."을 방영. 뭔가 긴박하게 보도하는 분위기에서 비껴져 있는 느낌이 들었음. 시청자 입장에서 중요 뉴스를 보기 위해서 타 방송을 선택하게 됨. 회담 보도에 있어서는 연합뉴스가 잘 보도하였다고 생각함. 현장감, 사실 전달, 전문가 좌담이나 인터뷰 등을 통한 분석 보도가 좋았음(김석민 위원)
- '산 넘어 산' 장애인에 문턱 높은 투표소: 갈길 먼 장애인 투표 참정권 뉴스는

잘 했다고 생각함(하규섭 위원)

- 월드컵에서 관련 영상 확보 문제가 있음(이우영 위원)

(끝).